

야곱의 개혁 운동

이 정 엽
(뉴비전교회 목사)

서언

개혁 운동이란 결코 허공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이나 공상의 세계에서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개혁 운동은 작게는 자기 개인의 사상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좀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처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넓게는 세계라는 현실적인 무대 가운데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과 처한 환경과 역사를 무시한 개혁 운동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처한 삶과 사회적인 상황과 그리고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뛰며 일한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노력 분투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배경은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주위의 이방 나라와 그 백성들과 신들에게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다.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개혁자들과 개혁 운동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점을 주시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애쓴 개혁 운동을 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개혁 운동의 원리와 실제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때 그 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삶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발로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하고 온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간섭이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때 그 때 사용하신 인물들과 개혁 운동들을 보면서 단지 인간적인 안목에서 인간적이고 도덕 윤리적인 교훈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 운동은 그 나라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하

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채우시며 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의 표현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방치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만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개혁 운동들을 주도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개혁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단순히 개혁 운동이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쓰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깎여지고 다듬어지며 성숙하고 있는지를 유념해서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자기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개혁 운동이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는 외식과 가식적인 행동이며, 호소력이 없고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시사해준다.

끝으로, 우리는 개혁자들과 개혁 운동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어떤 인간이나 우연이나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일하심과 역사가 없이는 개혁 운동이란 일어날 수도 없고, 개혁을 부르짖고 살려는 개혁자들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인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이고, 우리 역시도 내 힘으로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간섭과 인도를 구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개혁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개혁자와 개혁 운동”이라는 말의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개혁자로 보며, 무엇을 개혁 운동이라고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개혁”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므로, “개혁자”라 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자기 회개와 헌신을 그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개혁 운동”이란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사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같은 정의에 합한 사람과 운동으로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 가운데 편의상 야곱을 첫 번째로 택하였고, 창 35장의 “벧엘로 올라가자”는 사건을 개혁 운동의 한 구체적인 실례로 택하게 되었다.

야곱의 개혁 운동

1. 야곱의 개혁 운동의 배경

창 35장의 야곱의 개혁 운동을 살펴보기 이전에 왜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창 35장에 오기까지의 야곱의 생애를 되돌아보자.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쌍둥이 형은 에서이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 이미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던 자들이다. 이 일에 대하여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는 여호와께 묻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6:23).

야곱의 생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하셨다.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강하고, 섬김을 받는 자로 선택하셨던 것이다. 장자가 높임을 받고 더 일차적인 특권을 누리는 통념과 전례를 깨시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특권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배려는 단순한 상대적이고 비교적 차원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였으며, 그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한 사람은 죄 가운데 그대로 유기되어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같은 해석은 롬 9:11-13에 근거한 것이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결국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 이미 그가 복중에 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신 일하심의 생애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에 대하여 야곱은 단지 기계적으로 사용될 뿐이었던가? 야곱이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될 사람이니까” 하면서 기계적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뒷집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란 우리의 행위를 무가치하게 본다든지, 게으름을 조장한다든지,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야”라고 하면서宿命론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긍휼에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으시고, 능력의 하나님다운 처사인가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이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자신의 힘과 방법과 계략으로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인간이 본질상 갖고 있는 죄의 본성과 자기를 의존하려는 태도를 고집하였던 사람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으로부터 떡과 팔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행동으로 증거가 되며,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대신 축복을 받아내는 그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입증된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면 장자의 축복을 놓치게 될 것이라 염려하여, 아니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심지어는 남을 속이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이같은 행동은 어쩌다 한 번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그의 삶의 근본 자세와 태도가 그러했다는데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그래서 이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방관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목하여 택하신 자녀가 이처럼 남을 속이고, 자기의 힘과 방법을 의존하며 사는 것을 어찌 방치하시겠는가? 오히려 당신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수시로 간섭하여 들어오시며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고 빛으시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그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거기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의존하려는 야곱과의 싸움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보자. 장자의 명분과 이삭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그리고 가는 도중 해가 저서 돌을 베개삼아 자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어떠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땅위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주셨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 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허락보다는 “약속”이라는 말이 옳음)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3-15).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들이 있지만 폐일언하고 우선 창 35장과 연관시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누워 자는 땅, 나중에 야곱이 칭한 뻘엘(“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 것이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당장 그 땅을 주시지 않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으로 가도록 내버려두신 것인가? 그것은 땅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주어도 그것을 누릴만한 수준의 야곱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땅을 누릴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 하란으로 보내셔서 훈련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일하였건만 외삼촌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고 해서 또 다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었다.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에게 당한 것이다. 야곱의 말대로(창 29:25) 그는 외삼촌에게 보기 좋게 속은 것이다. 속이기 잘한 야곱이 속은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서 두 아내와 그들의 여종인 두 첩의 시기 반목으로 결코 편안한 가정 생활을 보내지 못하였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 와서 생명을 부지하고, 또 외삼촌 덕택에 아내들과 자식들도 얻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창 30:25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고향 본토로 가게 해줄 것과 처자식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한다. 야곱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후에는 물론 라반의 부당한 처사에 기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 나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야곱은 그 동안 대가를 위하여 일해 주었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일해준 대가를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가 외삼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잘못하면 무료로 봉사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외삼촌을 역으로 이용하여 한 밀천 잡고 나올 생각으로 고향으로 떠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더군다나 야곱이 뻘엘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같은 생각은 확실하다.

그런데 외삼촌은 야곱이 예상한 바대로 자기를 붙들었던 것이고,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면서 “네 품삷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창 30:28)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품삷을 사양하며 못이기는 척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드리고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한 일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야곱 소유의 양과 염소들이 많아지고, 또 노비와 약대와 나귀들이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났고 라반 역시도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행동을 지시하셨다. 야곱 스스로가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창 31:3)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은 자기 처들을 불러 상황 설명을 하며 라반에게서 떠날 것을 종용한다. 그 동안 라반의 속임수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돌보셨으며 도우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떠나도록 명령하셨다고 전한다. “나는 벨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창 31:13)고 하셨다고 전하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창 31:16)고 협조하였다. 한편 야곱이 도망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난 라반은 야곱을 추적하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야곱은 무사히 라반의 집을 빠져 나오게 되었다. 20년간의 하란에서의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동시에 벨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간섭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란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은 또 하나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형 에서가 지금도 자기를 기다리며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이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창 32:1-2을 보라.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말하자면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야곱을 위로하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친히 목격하고서도 야곱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사전 답사를 하고, 형 에서가 자기를 치기 위해 사백 인을 거느리고 벌써 마중 나온 사실을 알고 야곱은 초죽임이 된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기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그래도 안심이 안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창 32:9-12이 바로 그 기도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그 동안 복주셔서 빈손으로 갔던 제가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저를 죽이겠다고 벌써 알고서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이행치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소 하나님께 협박하는 투의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런 기도가 야곱의 두려움을 잠재우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작전을 세웠다. 어떻게 뇌물을 바쳐 형 에서의 환심을 사며, 만약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처자들과 가족까지도 서열을 정하여 배열해 놓고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최고의 지략을 발휘한다. 아니 최소한 자기 생명은 구하겠다고 야곱은 자기 홀로 뒤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주시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창 32:24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다. 흔히 야곱의 압

복 나루터에서의 씨름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성경의 기록을 주시해 보라. 먼저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만약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라고 한다면 야곱이 씨름을 걸고, 그 결과가 야곱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이 나와 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32:24-25) 치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고, 야곱이 항복하지 않자 치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과 방법에 의존하려는 야곱을 깨우쳐주고 항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것이다. 혹자가 말하듯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아뢴 기도도 아니었고, 또 야곱이 한 밤중이라 자기를 죽이려 온 험객인 줄 알고 씨름하였다가 날이 새자 그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된 것도 아니다. 이제까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야곱을 고치시고 항복시키기 위하여 간섭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고 떠나려고 하자 그 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가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자기 인생은 끝장나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깨달음과 행복은 야곱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훈련 부분이요 목표이다. 야곱은 처음부터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자이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자기 힘과 지혜를 의존하고 자기만은 살겠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헐박하였던 성숙하지 못한 신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참고 보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한 야곱은 그후 어떤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야곱이 두려워하고 염려한 형 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 자기를 환대해 주었다. 그리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에서의 말을 들은 야곱은 핑계를 내세우며 천천히 뒤따라가겠다고 하였는데 결국 나중에는 숙곳에서 주저앉게 되고, 가나안 세겜 성에 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세겜 성에 거하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분히 여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죽이는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이같은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창 34:30)고 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른다. 형 에서와 같은 일개 한 사람에게 미움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세겜 성 전체와 또 이웃 가나안 족속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말로, 그리고 상황에 마지못해 항복하고 구체적으로 항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의 위협을 받게 하셔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항복한 자답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야곱의 상태와 하나님의 의도에서 야곱의 개혁 운동은 시작된 것이다.

2. 야곱의 개혁 운동의 내용

그러면 야곱의 개혁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야곱의 개혁 운동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야곱 스스로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창 35:1 말씀이 그것을 확증해준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개혁 운동이었던 것이다. 야곱이 자기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의 아들들의 세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복수로 말미암아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야곱 스스로가 뉘우치고 시작한 개혁 운동이 아니었다. 야곱이 자력으로 일어나 전개한 개혁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끝까지 자신의 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야곱을 항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간섭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개혁 운동이었던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이같은 간섭과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다면 야곱은 아마도 세겜 사람들과 타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거나 멸절의 위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명령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드려 단순히 벧엘로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벧엘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그런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되었는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왜 나에게 그 동안 이런 끔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그같은 야곱의 깨달음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야곱은 단순히 “우리 모두 함께 벧엘로 올라가자”라고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가 가장으로서 옳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기 가정의 식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는지 알았고 그것을 먼저 바로 회개하며 개혁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베엘로 올라가자는 말을 꺼내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먼저 하였다. 창 35:2을 보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창 31장에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이방 신상을 섬겼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라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가정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족장으로서 라헬이 그렇게 된 것에는 야곱의 책임이 적지 않게 큰 것이다. 야곱이 그토록 아낀 아내가 이방 신상을 섬겼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아내의 기분 맞추는 것을 더 중히 여겼다는 증거이다. 야곱은 라헬의 죄를 묵인하였고, “복 받겠다고 그런 것이니 봐주자,” 혹은 “기왕이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부터도 복을 받자”는 생각으로 눈감아 주었을 것이다. 또 이것은 라헬이 그런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같은 생각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창 35:2)라는 야곱의 말을 통해 사실임이 확증된다.

따라서 야곱의 개혁 운동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기복주의와 혼합주의 종교와 신앙으로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경적인 개혁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내적, 외적인 개혁 운동을 단행하였다. 참다운 개혁 운동은 단지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중심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이런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만약 회개한 것으로 그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개혁 운동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시작만 하고서 중도에 그만두는 격이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3절)고 외쳤다. 그리고 왜 베엘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3절). 즉,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베엘로 올라가자고 한 것이다. 베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동안 야곱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 망덕하게 행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베엘로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이전에 베엘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야곱이 베고 잔 돌을 기둥으로 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에

서 십분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창 28:20-22)!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를 무사히 만났고, 수많은 처자식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건만 그같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야곱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한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참된 개혁 운동은 하나님만 일하시고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 개혁 운동에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개혁자들이 취할 마땅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같은 야곱의 개혁 운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창 35:5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벳엘에 이르고”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야곱이 이끄는 개혁 운동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야곱이 세겜 사람들을 비롯해 주위 가나안 족속의 위협을 무릅쓰고 개혁운동을 벌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위협과 우려를 이렇게 놀랍게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내셨음이다”고 하였다. “엘벳엘”이란 “벳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과거 형 에서를 피해 가던 중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한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벳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감사하며 단을 쌓고 경배를 드린 것이다.

이런 야곱의 감사와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9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11-12절)고 앞으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셨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 축복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아울러 더 한 걸음 진전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축복을 약속해주신 것이다. 이처럼 개혁 운동은 단 한 번의 운동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지속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이전에도 도우시며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개혁자와 개혁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야곱은 베엘로 돌아온 이후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성숙한 신앙 수준에 올라와 더 이상 성숙할 것이 없을 정도로 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한 인격과 신앙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부단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을 걷게 된다. 자기 아들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 할 때 염소의 죽은 피를 요셉이 입은 옷에 묻혀 왔는데(창 37:31) 이것은 과거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형 에서를 가장하기 위해서 잡은 염소의 가죽 털을 연상케 하는(창 27:16) 야곱의 죄를 상기시켜 주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였다. 야곱은 이런 자기가 부린 죄의 씨앗을 그대로 다 거두는 아픈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개혁 운동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단의 훈련으로 야곱을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특히 요셉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원대한 뜻을 점차적으로 이루어가셨다.

3. 야곱의 개혁 운동의 의미와 적용

그러면 야곱의 베엘 개혁 운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야곱의 개혁 운동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은 무엇인가? 야곱의 개혁 운동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며 적용해야 할 개혁의 원리들은 무엇인가?

첫째, 야곱의 개혁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이 개혁 운동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호응이 없다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나만이 이 개혁 운동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다. 자기 혼자만 외로이 주님을 위해 바알과 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칠천 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왕상 19:18)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을 위해 마귀와 비진리와 거짓 스승들과 거짓 교훈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날로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단의 세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승리케 하시며 영광스럽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교회가 되도록 집요하게 보존하시며 간섭하시며 연단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둘째로, 야곱의 개혁 운동은 먼저 야곱 자신의 회개로부터 시행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이었으며, 어떤 수준에 있었는가를 하나님의 간섭과 깨달음을 통해 알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야곱의 개혁 운동은 설득력과 열매가 있었던 것이다. 만약 야곱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있으며 자기 뜻과 방법과 수단으로 그런 개혁 운동을 부르짖었다면 그것은 한갓 구호로만 끝나며 또 다른 엄한 하나님

의 징계의 손길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통감하고 바로 볼 수 있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도 바로 볼 수 있었고 그들 역시도 바로잡아 줄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이처럼 개혁 운동은 철저히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줄 책임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야 한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하여 넘어지기 쉽고 듣는 이들의 빈축만을 살뿐이다. 나에게 깨달음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나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깨우쳐 주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책임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 운동은 이런 참된 각성과 회개를 맞본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도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런 운동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개혁을 부르짖는 당사자가 부패한 가운데 안주하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자신은 개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며 사회를 개조하겠다고 하니 그 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교회의 개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은 먼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통념과 예상을 뒤엎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지도자들만을 탓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작은 개혁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마음으로 개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야곱의 개혁 운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명령에 충실히 순종한 운동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운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경배한 운동이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불러온 운동이었다. 마찬가지로 참된 개혁 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은 한 순간만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서 얻은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딤후 3:14) 개혁 운동을 전개할 수 없다. 따라서 개혁자들은 항상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과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겸손과 순종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세의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성공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원인들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오늘 우리 교계와 사회가 혼탁하고 이름과 숫자만 자랑할 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나약한 교회와 성도가 된 이유도 이런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적으로,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된다고 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단과 비진리의 소리도 그만큼 많아져 성도와 교회들

을 넘어뜨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역시도 대(大)와 다수(多數)라는 미명에 스스로 속아 안주할 수 있는 부패한 인간임을 경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넷째로, 야곱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와 우리가 명심하고 따를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더디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야곱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아픈 상처와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가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요한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을 먼저 바로 꺾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성실하신 집념 때문인 것이다. 우리를 그만큼 당신의 자녀답게, 거룩한 교회와 성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신 열심과 일하심에 감사하고 감복하여 개혁자로서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단코 하나님의 매가 무서워서 마지 못해 하는 개혁 운동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다는 것을 시위하려는 생각에서 하는 개혁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하는 개혁 운동이라면 그 개혁자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혹은 비난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히 성실하게 개혁하는 삶과 운동을 지속하며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야곱의 개혁 운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일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일하심은 야곱을 깨우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다 개혁자로서 나서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야곱의 개혁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다. 그것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건설하는 계기가 된 시발점이었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엘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이 일은 야곱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을 거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일차적으로 성취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야곱의 개혁 운동이 중요한 일조를 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오늘 내가 하는 작은 개혁 운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천국을 죽어서나 가는 천국 정도로 알고, 그저 마지 못해 사는 성도라면, 그는 개혁 운동

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과 교회의 부패를 방관하며 도피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사는 자는 오늘날도 있는 곳곳에서 나부터 시작하여 주위를 변혁하는 개혁자들로서 개혁 운동을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베엘로 올라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로 중심으로 통회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세우며, 사단과 비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것이 다수가 따라가는 형편에 있다하더라도 돌이켜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사는 개혁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개혁 운동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